

## 주요 국가의 기업가정신 교육 현황 및 효과 연구: 2016년 글로벌 기업가정신 지수의 비교\*

남정민 (단국대 벤처창업학과 교수)\*\*

이환수 (단국대 융합보안학과 교수)\*\*\*

### 국 문 요 약

본 연구는 국내 창업 환경 개선 및 바람직한 창업 인식 조성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16 글로벌 기업가정신 트렌드 보고서(GETR)의 데이터(20개국 40,354명)를 활용하여 주요 국가의 기업가정신 교육 현황 및 국가별(유형별) 창업 실태, 그리고 기업가정신과 창업 의지 및 기회형 창업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먼저 한국은 기업가정신교육의 확대가 시급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국의 '초중고 기업가정신교육 경험'은 20개국 중 최하위수준(19위)이었으며, '대학' 및 '평생교육'은 중위권(15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기업가정신교육은 연령대를 불문하고 활성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중고령자에 대한 기업가정신교육은 상대적으로 미약한 수준이었다. 이는 향후 평생교육 차원의 교육 확대가 요구되며, 재직자 및 은퇴예정자 대상 기업가정신 교육 개발 및 확대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둘째로, 한국인 개인의 창업의지는 3.8점으로 중하위권(15위)이었고, 기회형 창업수준은 최하위(20위)였다. 중국(4.55) 및 미국(4.01)과 비교할 때 한국인의 개인 창업의지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기회형 창업 수준 또한 한국은 3.43점으로 중국(4.35), 일본(4.04), 미국(4.59)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일반적으로 요소주도형→효율주도형→혁신주도형으로 전환될수록 기회형 창업의 비중은 높아지는데, 한국의 경우 비자발적 창업 및 소상공 중심의 창업 비중이 높아 기회형 창업 수준이 낮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요소주도형, 효율주도형, 혁신주도형 모든 유형에서 기업가정신교육 참여에 따른 창업의지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혁신주도형일수록 모든 기업가정신 교육(초중고, 대학, 평생교육) 참여여부에 따라 신규창업의지는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혁신주도형인 한국의 경우 기업가정신교육의 양적 확대를 기반으로 질적 제고를 이룬다면, 지금의 중하위권(15위)에 머문 국민의 창업의지를 상승시킬 주요한 원동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핵심주제어: 글로벌 기업가정신 트렌드, 글로벌 기업가정신 모니터링, 기회형 창업, 요소주도형 경제, 효율주도형 경제, 혁신주도형 경제

### 1. 서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주요 국가들은 생존전략으로 창업 및 기업가정신의 부활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창업국가 미국(Start-up America)'을 국가비전으로 제시하여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창업과 혁신, 기업가정신'을 중심으로 경제운영 방안을 수립했다. 이러한 전략 실천을 위해 미 행정부의 주요부처(SBA, 재무부, 상무부 등)와 카우프만 재단, 구글 등의 민간 대기업이 적극 참여하고 있다. 핀란드의 경우 정부 주도하에 핀란드 경제회복을 위해 도전적 창업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왔다. 창업 프레임워크 강화, 노키아 해고직원 창업지원 및 글로벌 벤처캐피탈 활동 등의 창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추진해 왔다(김성훈·남정민, 2016). 이러한 창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으로 최근에 4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2012년 이후)의 굴레에서 벗어나 유럽 최고의 스타트업 국가로 핀란드는 성장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도 창업에 대한 투자 열기는 나날이 고조되고 있다. 2016년도 중국의 창업 투자 금액이 8000억 위안을 상회해 전 세계 2위에 올랐다. 중국 정부는 2014년부터 창업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일련의 정책을 내놓고 있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2014년 5월 '창업 투자 펀드 확대 방안'을 수립했으며 창업 투자 기관인 'Angel Investment'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9월에는 국무원이 '창업 투자의 건강한 발전에 대한 의견'을 공표해 창업 투자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제시하였고, 그 결과 중국의 창업 투자금액이 2012년 말 3312억 위안에서 2016년 말 8277억 위안으로 5년간 약 150% 증가했다. 중국의 신규 기업 수도 2012년 945.8만개에서 2016년 1651.3만개로 75% 늘어났다(권선아, 2017).

\* 이 논문은 2017년도 정부(중소기업청)의 재원으로 (재)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사업입니다.

\*\* 제1저자, 단국대학교 정보지식재산대학원 벤처창업학과, namjm@dankook.ac.kr

\*\*\* 교신저자,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융합보안학과, hanslee992@gmail.com

· 투고일: 2017-10-17 · 수정일: 2017-12-09 · 게재확정일: 2017-12-29

일부에서는 창업환경 조성에 있어 정부의 지나친 개입에 대한 우려가 있기는 하지만(GEM Policy Briefs, 2016), 많은 국가들이 창업환경 조성에서 적극적인 정부개입을 진행 중에 있다. 또한 바람직한 창업 및 기업가정신 생태계 조성에 집중함으로써 장기적인 불황으로 인한 취업난 및 실업난에서 벗어나 국가차원의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를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 주요 국가들의 생존전략 방향과 같이 우리나라도 경기침체 및 청년실업률 증가와 같은 장기불황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부는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실현을 제1의 국가 목표로 설정하였고, 이에 따라 2015년 4월 벤처기업 수는 30,331개로 10년 동안 약 3배가량 증가하는 등 외형적으로 우리나라의 창업생태계가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2017년 들어서 새 정부는 국정주요 과제로 ‘혁신을 응원하는 창업국가 조성’을 제시하면서 일자리 창출력이 높은 벤처 및 중소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4차 산업혁명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및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창업 활성화를 위한 범부처 대응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주요 정책 공약은 스타트업에 대한 엔젤투자 활성화, 성장단계별 정책자금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스타트업의 생존율을 제고할 계획이며, 현행 중소기업부 재창업 전용펀드를 ‘삼 세 번 재기 지원펀드’로 확대해 정부가 창업자금을 세 번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창업자들의 제도전환을 돕기 위해 중소기업 대표이사 연대 보증제를 폐지하고 사업실패로 인해 빚을 진 경우 파산 및 회생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창업과 스타트업의 M&A 및 투자 촉진을 위한 규제완화, 대기업에 인수된 스타트업의 중소기업 지위유지기간 확대 등을 통해 대중소기업간 혁신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공약도 내세웠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다양한 창업 활성화 정책을 통해 외형적인 개선이 이루어졌으나, 2016-2017년 GEM 리포트(총64개국 기준)에 따르면, 창업금융(38위), 창업 문화 및 사회적 인식(31위), 시장규제(50위), 창업의지(20위), 창업에 대한 긍정적 직업인식(Entrepreneurship a good career choice, 55위) 등 한국의 창업환경은 타 국가와 비교할 때 여러 한계점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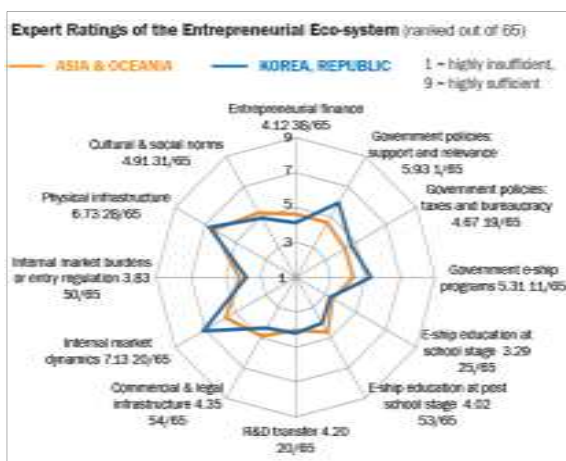
이에 본 연구는 한국청년기업가정신 재단이 발표하는 2016년도 글로벌 기업가정신 트렌드지수(이하, GETR) 데이터를 활용하여 20개국 4만 명의 자료를 통해 실제 정책 수혜자들이 인식하는 창업환경에 대한 분석을 수행한다. 기존 GETR 보고서는 기업가 정신 지표에 대해서만 주로 논의하고 있고, 기술통계를 바탕으로 한 국가별 현황 중심으로 분석되어 있기 때문에 학술적으로 의미 있는 논의를 이어가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 또한 국가별 기업가 정신 지수 차이의 원인이나 국가별 특수성을 고려한 정치적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실무적 시사점을 도출하기에는 제한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표는 첫째, 국가별 기업가정신교육 현황을 기초로 국가유형별 및 연령별 기업가정신교육 참여 현황을 살펴본다. 둘째, 국가별 창업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국가별 개인의 창업 의지 및 기회형 창업수준을 분석한다. 셋째, 기업가정신과 창업의 관계를 밝히기 위해 기업가정신교육과 창업의지의 관계 및 국가유형별 기업가정신교육의 효과성을 밝힌다. 이를 통해 국내 기업가정신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기업가정신 및 창업의지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 II. 연구의 배경 및 연구방법

### 2.1 기업가정신 평가모델

선진국들은 기업가정신 제고를 위한 정책연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기업가정신 기초 연구의 활성화를 위해 우리보다 앞선 패널 조사를 시작해왔다. 오랜 기간 동안 성공적으로 질적·양적 수준 높은 데이터를 축적해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학술적 논의와 함께 정책 수립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왔다. 그러나 국내 기업가정신관련 패널 연구는 초기 수준에 머물러 있다. 특히 국내 기업가정신연구는 횡단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동적인 차원에서 개인과 조직의 장기간에 걸친 변화와 상태의 이동과정을 보여주지 못하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남정민, 2017). 국외의 대표적인 기업가정신지수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2.1.1 글로벌 기업가정신 모니터(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 GEM)



<그림 1> 한국의 기업가정신 및 창업 수준 (2016-2017 GEM Report)

1) 기업가정신 생태계를 제시한 기존 연구들은 Isenberg(2011)의 생태계 연구에서 제시한 Domain of Entrepreneurship Ecosystem을 각 연구의 목적에 맞게 개념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Isenberg는 기업가정신생태계를 클러스터 전략 실행, 혁신적인 시스템 운영, 지식기반 경제 운영 등을 경제 발전을 이루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보았다(한창희 외, 2016).

GEM 지수는 가장 널리 알려진 기업가정신 지수로, 1999년부터 런던경영대학(London Business School)과 미국 밥슨 칼리지(Babson College)가 매년 공동으로 조사하고 있는 글로벌 설문조사이다(Mike, 2017). GEM의 설문조사는 일반 성인조사(Adult Population Survey; APS)와 전문가 조사(National Expert Survey; NES)로 나누어 시행한다.

일반 성인조사(APS)는 62개 조사대상 국가별로 18세-64세 이하 2,000명 이상의 일반 성인을 표본 추출하여 설문조사를 수행하고, 전문가조사(NES)는 각 국가별 최소 36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GEM 조사는 개념적으로 개인의 혁신적 활동은 경제사회적 환경과 상호 밀접한 영향을 주고받는다든가 전제하에 기업가정신과 경제발전간의 상호 연관성을 고려하여 디자인되었다. 주요 조사항목은 창업에 대한 사회의 가치 인식(Perception of Societal Values Related to Entrepreneurship), 창업에 대한 창업자 자신의 인식(Individual Self-Perceptions about Entrepreneurship), 기업가적 활동지수(Entrepreneurial Activity Indicators), 창업 환경의 질(Perceived Quality of the Entrepreneurship Ecosystem)로 구분하고 있다.

2004년 이후로 GEM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연구들이 활발히 수행되기 시작하였는데, 초기에는 국가들 간의 기업가정신 비교 연구가 주를 이루었고 이후 개인차원에 대한 논의와 다양한 연구 방법론을 응용한 연구들로 확장되었다(Bosma, 2013). GEM 데이터와 함께 국가별 경제 지표와 통합적으로 분석될 경우 창업생태계와 관련된 의미 있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Kegel, 2016).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창업활동은 GDP 성장률과 실업률 증가와 관련이 있는 반면, 일본의 창업활동은 실업률 증가와는 관련이 있으나 GDP 변화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보고서부터는 Porter & Schwab(2008)의 국가경제발전 단계에 따라 기업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비교하였다. 저개발 국가에서는 높은 생산성을 요구하는 일자리가 드물어 생계형 자영업 활동 비중이 높으며, 경제가 발전하게 되면서 자본과 사회간접자본을 활용하여 기회 추구형 창업활동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GEM 보고서에서 이와 유사하게 경제발전단계가 가장 높은 혁신주도형 국가에서 기업가에 대한 긍정적 사회인식이 형성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최근에는 GEM 한국 데이터를 바탕으로 국내 연구도 추진되었다(이채원, 2017).

그러나, GEM 조사는 기업가의 개인적인 인적 요소와 사회적 환경 요인을 동시에 고려한다는 점, 통계가 없는 정보를 글로벌 규모의 설문조사로 얻어낸다는 점 등에서 장점이 있으나, 상대적으로 초기단계 기업가적 활동과 관련된 환경 요소들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한계가 있다.

### 2.1.2 글로벌 기업가정신 지수(Global Entrepreneurship Index)

GEI는 세계 기업가 정신발전기구(GEDI)에서 매년 발표하는

기업가정신 지수로 2012년부터 전 세계 120여 개국을 대상으로 분석하여 제공해 오고 있다(황인학, 2017). GEI는 기업가정신을 태도(5개), 능력(4개), 열망(5개)의 총 14개 지표로 측정하고 있는데 개별 지표를 개인변수와 제도변수로 나누어 종합하여 추정하고 있다. 태도항목에서는 기회 인식, 창업 역량, 위험 감수, 네트워킹, 문화적 지원을 측정하고 있으며, 능력항목은 기회 창업, 기술 흡수, 인적 자본, 경쟁 변수를 통해 측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열망항목은 제품 혁신, 공정 혁신, 고도성장, 국제화, 모험자본을 평가하여 제시하고 있다.

2017년 GEI 분석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종합점수 51%로 조사대상 중 27위이나 OECD 34개 회원국 중에서는 23위로 중하위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가장 취약한 부분은 문화적 지원으로 기업가에 대한 사회적 인정 및 기업가 선망이 최하위권 수준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GEI는 창업생태계와 관련하여 다양한 관점의 수준을 평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큰 강점이 있으나, 매년 추정방식이 변화하고 있고 개인변수는 GEM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한계점이 있다.

### 2.1.3 OECD 한눈에 보는 기업가정신(OECD Entrepreneurship at a Glance)

OECD에서는 기업가정신의 발현과 기업가정신의 영향요인, 기업가정신이 경제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기 위해 조사를 진행하고, 이를 통한 증거기반의 정책수립(Evidence-Based Policy Making)을 목적으로 조사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OECD조사는 설문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OECD의 구조적·인구통계학적 사업체 조사통계 등 주요 국제기구가 발간한 주요 통계지표들을 바탕으로 기업가정신 관련 지표에 알맞은 자료들을 추출하고, 주요 기업가정신 관련 자료들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기업가정신 관련 결정요인(Determinants) 지표는 규제, 시장 환경, 금융서비스 접근성, 지식의 창조 및 확산, 기업가적 역량, 기업가정신 문화 등 총 6가지의 주요 부문으로 나뉜다. 효과에 대해서는 일자리 창출, 경제성장, 빈곤감소, 비공식적 부문의 공식화 등으로 나뉜다(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2015).

2011년부터 매년 발간되는 Entrepreneurship at a Glance 보고서에서 기업가정신 결정요인들에 대해 부분적으로만 공개하고 있다는 점, 대부분의 지표들이 타 기관의 데이터를 가공하여 제시하고 있다는 점, 기업가 개인의 역량 및 인식을 평가하는 항목은 없다는 점 등은 한계점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가차원의 기업가정신 영향요인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을 주는 데 매우 유의미한 분석들을 제공한다.

### 2.1.4 세계은행의 창업환경지수(World Bank Doing Business : WBDB)

세계은행 창업환경지수는 각국의 창업 및 사업 운영의 용이성을 규제적 차원에서 비교하고 분석하기 위해 세계은행이

2002년부터 진행한 프로젝트이다. 지수는 창업 및 기업 활동과 관련된 규제의 영향을 측정하기 위해 회사를 설립하는데 필요한 행정절차의 부담을 측정하는 ‘사업시작’부문에서 ‘신용획득’, ‘투자자 보고’, ‘국가 간 무역’과 같은 사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필요한 다양한 규제들을 10가지 항목으로 측정하기 때문에 규제적 측정을 국제적으로 비교하는데 가장 적합한 지수라 할 수 있다. 창업 및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정도가 경제자유도 및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들의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창업환경을 규제 강도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최진욱·박진아, 2016).

그러나 규제 차원의 문제에 한정되어 있어 기업가정신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요소들을 고려하고 있지 않아 국가의 기업가정신을 전반적으로 설명하는 지표로서는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다(이윤준 외, 2014).

### 2.1.5 언스트앤영 G20 기업가정신 바로미터 (Ernst & Young G20 Entrepreneurship Barometer)

Ernst & Young은 2011년에 이어 2013년에 두 번째로 G20 국가들을 대상으로 기업가정신이 발현되기에 적합한 기업가적 생태계(Entrepreneurship Ecosystem)를 조사하였다.

기업가적 생태계를 구성하는 5가지 주요 부문을 자금조달의 용이성(Access to Funding), 기업가정신 문화(Entrepreneurship Culture), 세금 및 규제(Tax and Regulation), 교육 및 훈련(Education and Training), 협력 지원(Coordinated Support)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기업가 개인의 창업 역량과 인식, 창업 성과 변수 등은 누락되어 있으나 창업에 영향을 미치는 인프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질적 평가 부분에서 기업가 대상의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양적 평가 부분에서 2차 자료 조사를 통해 정성적인 분석과 정량적인 분석을 동시에 시도한다는 장점을 가지며, 다각도 분석으로 조사결과에 특정 국가나 집단의 견해가 지나치게 반영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남정민, 2017).

### 2.1.6 카프만 인덱스(Kauffman Index)

미국 내 창업활동을 측정하기 위해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는 지표로 카프만 인덱스(The Kauffman Index: Startup Activity)가 있다(Kegel, 2016). 카프만 인덱스는 1997년 이후 미국 전체 및 40개 대도시의 다양한 창업활동 트렌드를 조사하여 데이터로 제공해왔다. 가장 큰 특징은 창업생태계의 핵심 지표가 될 수 있는 창업 활동 지표(Startup Activity Index)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김선우·박기운,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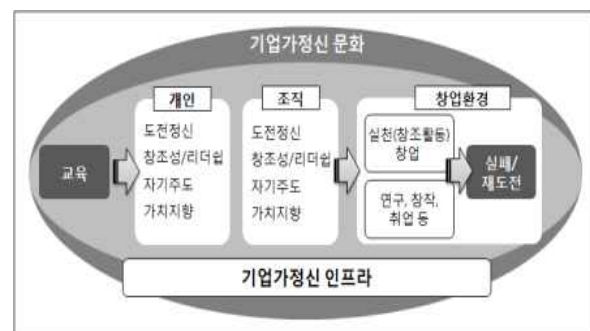
창업활동지표는 창업자 비율(Rate of New Entrepreneurs), 창업자의 기회 비율(Opportunity Share of New Entrepreneurs), 창업밀도(Startup Density)를 조합하여 제시하고 있다. 창업생태계와 관련된 핵심지표를 일관되게 제공하고 있어, 미국 내 기업가정신 변화 추이를 객관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다는 점

에서 큰 강점이 있다. 그러나 미국 내 주, 도시 별 비교만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지표를 바탕으로 다른 국가에서 유사한 조사를 수행하지 않으면 글로벌 지표로 활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상과 같이 기업가정신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국내외의 다양한 기관에서 기업가정신과 관련된 각종 지수 및 통계 등을 공표하고 있으나,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방법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있으며, 기업가정신의 내용이 창업에만 집중되어 있거나, 조사방법론 등의 문제로 결과값에 대한 신뢰성 저하 및 정책 추진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어 기존 지수의 보완 및 새로운 지수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2.2 글로벌 기업가정신 트렌드(Global Entrepreneurship Trend Report: GETR) 지수

GETR은 중소기업벤처부와 청년기업가정신재단이 2015년부터 추진해온 글로벌 기업가정신 지수이다. 매년 발간되고 있는 GETR 보고서는 국문 버전과 함께 영문 버전으로도 발간되어 글로벌 기업가정신 지표로서 활용도가 매우 높은 자료이다. GETR은 기업가적 프로세스와 사회적 환경을 균형 있게 반영하고, 기업가정신의 성과 차원과 결정요인 차원을 동시에 포함함으로써 창업활동뿐만 아니라 기타 활동(연구, 창작, 취업, 실패·재도전)에 기업가정신의 영향력을 도출하기 위해 개발된 지수이다. 비록 측정 문항의 복잡성, 해외 지표와의 연계성, 연구에 활용 가능한 종속 변수의 부족 등 몇 가지 개선점을 내포하고 있으나 10개국 4000여개 샘플을 바탕으로 다양한 차원의 기업가 정신 글로벌 수준 비교가 가능하다는 점에서는 매우 유용한 지표이다(정구혁·이병헌, 2017).



<그림 2> 기업가정신 정의에 기초한 개념 모델

본 연구에서 정의하는 기업가정신은 ‘미래의 불확실성과 높은 위험에도 불구하고 주도적으로 기회를 포착·도전하며, 혁신활동을 통해 개인적·사회적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실천적 역량’이며, 기업가적 프로세스(Process)와 사회적 환경





인을 예측할 수 있는 다양한 로우(Raw)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업가정신교육이 미치는 영향력과 이를 통해 형성된 기업가정신이 실제 창업의지와는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지를 통계적으로 밝히는 것이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이며 범위로 설정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첫째, 국가별 기업가정신교육 현황을 기초로 국가유형별 및 연령별 기업가정신교육 참여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국가별 창업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국가별 개인의 창업의지 및 기회형 창업수준을 분석한다. 셋째, 기업가정신과 창업의 관계를 밝히기 위해 기업가정신교육과 창업의지의 관계 및 국가유형별 기업가정신교육의 효과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국내 기업가정신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기업가정신 및 창업의지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2016년 GETR 조사를 통해 20개국 40,354명으로부터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대상인 20개국은 Porter & Schwab(2008)<sup>2)</sup>에서 제시한 기준을 바탕으로 「요소주도형(Factor-Driven Economies)」 2개국, 「효율주도형(Efficiency-Driven Economies)」 8개국, 「혁신주도형(Innovation-Driven Economies)」 10개국으로 범주화함으로써 국가별 비교 및 유형별 비교를 병행하였다. 기존 GEM 데이터를 바탕으로 국가의 경제발전 단계별 기업가정신 데이터를 비교한 연구는 일부 존재하나 GETR 데이터를 기반으로 진행된 연구는 없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을 위해서는 SPSS 23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통계분석, ANOVA(Analysis of Variance)로 분석했으며, 분석 대상 국가 현황 및 표본수는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분석 대상 국가 및 표본

전체 40354 명 (단위 명)					
요소 중심국가	인도	2000	혁신 중심국가	한국	2000
	이집트	2054		일본	2000
효율 중심국가	중국	2057		싱가포르	2068
	인도네시아	2000		영국	2037
	러시아	2011		독일	2022
	터키	2021		덴마크	1999
	UAE	2000		핀란드	2021
	남아공	2028		이스라엘	2000
	브라질	2000		미국	2000
	칠레	2003		호주	2033

### III. 분석결과

#### 3.1 국가별 기업가정신교육 현황

##### 3.1.1 국가별 기업가정신교육 참여 현황

한국의 경우 ‘초중고 기업가정신교육 경험’은 일본을 제외하고 20개국 중 최하위수준(19위)에 있으며, ‘대학 내 기업가정신교육 경험’ 및 ‘평생교육수준 기업가정신교육 경험’은 중위권(15위)에 위치하고 있다. 창업선도대학 선정·지원 및 기업

가정신센터 설치 등을 통해 대학생 및 성인에 대한 창업교육의 양적 수준은 증대했지만, 초중고 학생에 대한 기업가정신 및 창업교육의 공급은 아직까지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표 3> 참조).

<표3> 국가별 기업가정신교육 참여율

국가	초중고	대학	평생교육
인도	0.33	0.23	0.15
이집트	0.4	0.37	0.3
중국	0.39	0.5	0.39
인도네시아	0.42	0.43	0.27
러시아	0.41	0.33	0.24
터키	0.32	0.34	0.29
UAE	0.53	0.43	0.32
남아공	0.42	0.25	0.19
브라질	0.37	0.37	0.38
칠레	0.37	0.43	0.34
<b>한국</b>	<b>0.19(19위)</b>	<b>0.21(15위)</b>	<b>0.17(15위)</b>
일본	0.04	0.04	0.04
싱가포르	0.35	0.25	0.21
영국	0.23	0.14	0.13
독일	0.3	0.21	0.27
덴마크	0.25	0.13	0.17
핀란드	0.46	0.14	0.26
이스라엘	0.31	0.24	0.19
미국	0.29	0.21	0.18
호주	0.22	0.14	0.13
전체	0.33	0.27	0.23

\* 참조 : 한국의 초중고 기업가정신 참여율이 0.19점은 10명중 1.9명은 교육 참여경험이 있음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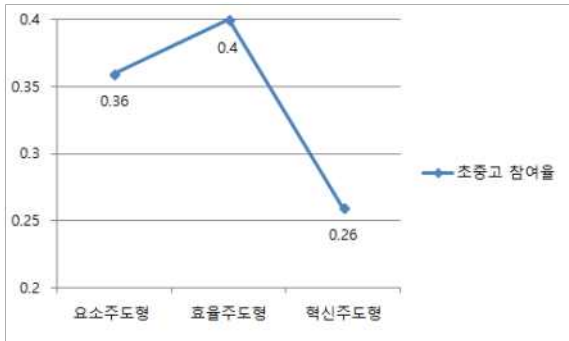
##### 3.1.2. 국가유형별 기업가정신교육 참여 현황

<표 4> 및 <그림 3>과 같이 요소주도형, 효율주도형, 혁신주도형으로 구분(Porter & Schwab, 2008)하여 초중고, 대학, 평생교육 차원의 기업가정신교육 참여를 비교한 결과(통계적으로 모든 비교에서 1% 수준에서 유의적으로 나타남), 효율주도형에서 가장 높은 교육 참여율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의 경우 대학수준의 기업가정신교육은 혁신주도형 국가 중에서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한국 0.21, 혁신유형평균 0.17), 초중고의 경우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한국, 0.19, 혁신유형평균 0.26)에 머물고 있다.

<표4> 국가유형별 기업가정신교육 참여율

국가유형	초중고	대학	평생교육
요소주도형	0.36	0.3	0.22
효율주도형	0.40	0.38	0.30
혁신주도형	0.26	0.17	0.17
한국	0.19	0.21	0.17
전체	0.33	0.27	0.23
F값 /유의확률	417.268 / .000	1064.885 / .000	375.356 / .000

2) Porter & Schwab(2008)은 경제발전수준을 고려하여 요소주도형경제(주로 자연 상태에서 경제적 수단을 찾는 경제), 효율주도형경제(규모집약도가 경제 발전의 동인이 되는 경제), 혁신주도형경제(연구개발, 지식집약, 혁신활동이 동인이 되는 경제)로 구분하여 국가를 유형화했으며, GEM보고서는 이를 근거하여 국가별 창업 환경 수준을 비교분석하고 있음.



<그림 3> 국가유형별 초중고 기업가정신교육 참여율

### 3.1.2 연령별 기업가정신교육 참여 현황

전 세계적으로 10대 및 20대 대상 기업가정신교육은 상대적으로 활성화되고 있으나, 30대 이상 연령층에 대한 교육기회는 연령 증가에 따라 감소하고 있다(<표5> 참조).

향후 평생교육(Life-Long Education)차원의 기업가정신교육 확대가 요구되며, 재직자 및 은퇴예정자 대상 기업가정신 교육 개발 및 확대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표 5> 연령별 개인의 교육경험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초중고 기업가정신 교육경험	10대	2142	0.43	0.495
	20대	9932	0.45	0.497
	30대	11463	0.35	0.476
	40대	8764	0.26	0.439
	50대	5847	0.21	0.409
	60대	2207	0.21	0.409
대학 기업가정신 교육경험	10대	1620	0.27	0.446
	20대	9676	0.38	0.484
	30대	11366	0.31	0.463
	40대	8706	0.22	0.414
	50대	5809	0.15	0.353
	60대	2192	0.13	0.339
평생교육 기업가정신 교육경험	10대	1134	0.187	0.39
	20대	7993	0.272	0.4448
	30대	10994	0.253	0.4346
	40대	8523	0.215	0.4106
	50대	5749	0.18	0.3841
	60대	2150	0.176	0.3811

## 3.2 국가별 창업 실태

### 3.2.1. 국가별 개인의 창업의지

국가별 응답자를 기준으로 창업의지를 비교한 결과 통계적으로 1%이내 수준에서 유의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인 개인의 창업의지는 3.80점(7점 척도 기준)으로 중하위권에 속하며, 특히 중국(4.55) 및 미국(4.01)에 비해 상당히 낮은 점수에

머물고 있다. 신규창업의지는 요소주도형→효율주도형→혁신주도형 순으로 낮아지고 있는데(참조 <그림 4>), 이는 타 연구(GEM 및 GEI)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표6> 국가별 개인의 창업의지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인도	2000	4.87	1.626	0.036
이집트	2054	5.17	1.412	0.031
<b>중국</b>	<b>2057</b>	<b>4.55</b>	<b>1.451</b>	<b>0.032</b>
인도네시아	2000	5.78	1.196	0.027
러시아	2011	4.12	1.468	0.033
터키	2021	4.95	1.506	0.034
UAE	2000	5.14	1.408	0.031
남아공	2028	5.06	1.553	0.034
브라질	2000	4.88	1.729	0.039
칠레	2003	5.36	1.254	0.028
<b>한국</b>	<b>2000</b>	<b>3.80</b>	<b>1.365</b>	<b>0.031</b>
<b>일본</b>	<b>2000</b>	<b>2.84</b>	<b>1.470</b>	<b>0.033</b>
싱가포르	2068	4.41	1.439	0.032
영국	2037	3.55	1.642	0.036
독일	2022	2.80	1.557	0.035
덴마크	1999	3.28	1.704	0.038
핀란드	2021	3.03	1.547	0.034
이스라엘	2000	3.94	1.556	0.035
<b>미국</b>	<b>2000</b>	<b>4.01</b>	<b>1.714</b>	<b>0.038</b>
호주	2033	3.61	1.639	0.036
전체	40354	4.26	1.748	0.009
F값/유의확률		691.231 / .000		



<그림 4> 국가별 개인의 창업의지

### 3.2.2. 국가 및 유형별 기회형 창업 수준

국가의 경제유형별로 살펴보면 요소주도형→효율주도형→혁신주도형으로 진행될수록 기회형 창업<sup>3)</sup>의 비중은 높게 나타나고 있다(참조 <표 7>, <그림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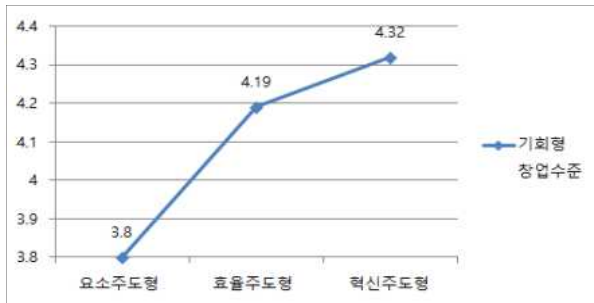
한국의 경우 비자발적인 창업 및 소상공 중심의 창업 비중이 높기 때문에 기회형 창업 수준이 3.43점(7점 척도 기준)으로 매우 낮게 나타남으로써 생계형 중심의 창업이 두드러지

3) 생계형 창업(necessity-based entrepreneurship) : 요소주도형 경제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유형으로 생계유지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창업을 말하며, 기회형 창업(opportunity-based entrepreneurship) : 혁신주도형 경제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유형으로 더 나은 경제적 목적 및 비경제적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창업을 말한다(GEM, 2016).

게 나타나고 있다(전체 국가 중 기회형 창업은 최하위 수준에 위치). 기회형 창업보다는 생계형 창업의 비중이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은 우리나라 창업 환경 및 인식, 유형 등이 매우 열악하다는 점을 나타내는 주요한 결과이다. 특히 주요 비교 대상국인 일본(4.04), 중국(4.35), 미국(4.59)에 비해 기회형 창업수준이 현저히 낮다는 점에서 향후 국내 창업환경의 전환 기적 변화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참조 <표 8>).

<표 7> 국가유형별 기회형 창업수준

	N	평균	표준편차	F값 /유의확률
요소주도형	1196	3.8	1.782	45.371/ .000
효율주도형	4999	4.19	1.634	
혁신주도형	3763	4.32	1.622	
전체	9958	4.20	1.655	



<그림 5> 국가유형별 기회형 창업수준

<표 8> 국가별 기회형 창업수준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인도	577	3.76	1.814
이집트	619	3.84	1.751
<b>중국</b>	<b>580</b>	<b>4.35</b>	<b>1.476</b>
인도네시아	724	4.19	1.733
러시아	445	4.1	1.363
터키	460	3.9	1.762
UAE	651	4.16	1.548
남아공	788	4.07	1.778
브라질	433	4.8	1.765
칠레	918	4.13	1.491
<b>한국</b>	<b>425</b>	<b>3.43</b>	<b>1.473</b>
<b>일본</b>	<b>155</b>	<b>4.04</b>	<b>1.747</b>
싱가포르	454	4.59	1.376
영국	369	4.39	1.683
독일	496	4.2	1.539
덴마크	236	4.84	1.39
핀란드	421	3.92	1.777
이스라엘	330	4.63	1.324
<b>미국</b>	<b>480</b>	<b>4.59</b>	<b>1.734</b>
호주	397	4.72	1.576
전체	9958	4.2	1.655

### 3.3 기업가정신교육과 창업의 관계

기업가정신교육 유형(초중고, 대학, 평생교육 등)과 창업의지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든 기업가정신교육 유형과 창업의지는 0.01 유의수준 하에서 유의한 정(+)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참조 <표 9>).

<표9> 상관관계 분석결과

	1	2	3	4	5	6	7	8	9
1.성별	1	.015**	.026**	.035**	0.002	.044**	.057**	.057**	.082**
2.연령대		1	.329**	.321**	.055**	-.177*	-.173*	-.068*	-.276*
3.결혼여부			1	.861**	.091**	0.007	.065**	.091**	.040**
4.자녀유무				1	.068**	.017**	.080**	.106**	.055**
5.학력					1	-.014*	.127**	.015**	.047**
6.초중고기 업가정신교 육경험						1	.461**	.428**	.231**
7.대학기업 가정신교육 경험							1	.398**	.273**
8.평생교육 기업가정신 교육경험								1	.197**
9.신규창업 의향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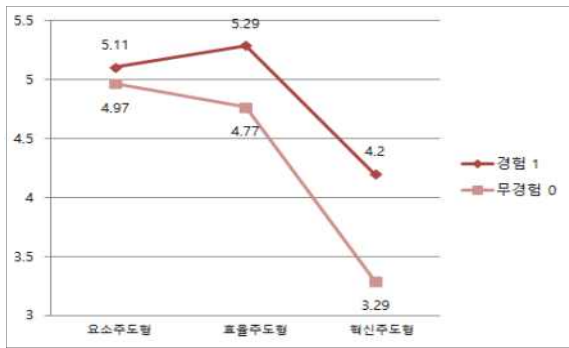
\*성별(남성1, 여성0), 연령대(10대 1, 20대 2), 결혼여부(기혼 1, 미혼 0), 자녀유무(있음 1, 없음 0), 유형별 교육경험(있음 1, 없음 0), 신규창업의향(1~7점)

국가유형별 기업가정신교육의 효과성을 분석하기 위해 교육 경험(교육 참여 유무)에 따른 집단 간 평균비교를 실시하였다. <표 10>에서 유형별(초중고, 대학, 평생교육)로 국가 유형에 따른 교육 참여 여부에 따라 창업의지는 다르게 나타남을 알 수 있으며, 모든 국가유형에서 기업가정신교육 참여에 따라 신규창업의지는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그림6, 7, 8>과 같이 혁신유형일수록 효율 및 요소유형보다 기업가정신교육 참여 여부에 따라 신규창업의지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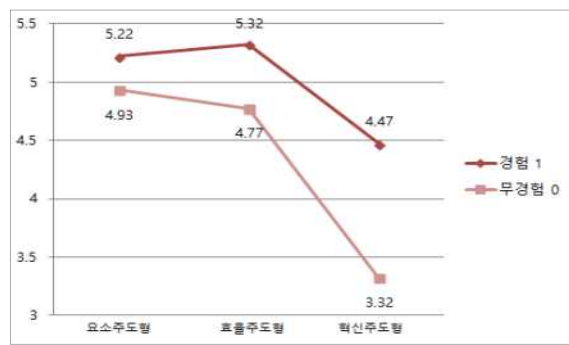
<표10> 국가유형 및 교육유형별 신규창업의지

교육 유형	국가 유형	교육 경험	평균	표준편차	F값 / 유의확률
초중고 기업가정신 교육	요소	있음	5.11	1.616	121.398/0 .000
		없음	4.97	1.474	
	효율	있음	5.29	1.409	
		없음	4.77	1.568	
	혁신	있음	4.20	1.566	
		없음	3.29	1.609	
대학 기업가정신 교육	요소	있음	5.22	1.428	106.735 / 0.000
		없음	4.93	1.547	
	효율	있음	5.32	1.357	
		없음	4.77	1.585	
	혁신	있음	4.47	1.502	
		없음	3.32	1.610	
평생교육 기업가정신 교육	요소	있음	5.20	1.298	103.280 / 0.000
		없음	4.88	1.591	
	효율	있음	5.22	1.419	
		없음	4.85	1.564	
	혁신	있음	4.25	1.619	
		없음	3.31	1.6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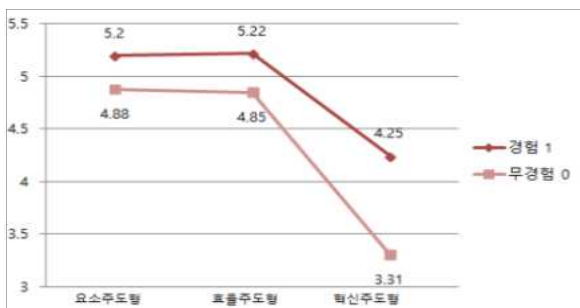




<그림 6> 국가유형별 초중고기업가정신교육참여에 따른 창업의지



<그림 7> 국가유형별 대학 기업가정신교육참여에 따른 창업의지



<그림 8> 국가유형별 평생교육 기업가정신교육참여에 따른 창업의지

주목할 점은 경제발전수준이 높아질수록(요소→효율→혁신) 개인의 창업의지는 낮아지는 추세이지만, 기업가정신교육 경험을 통해 창업의지는 큰 폭으로 증대된다는 점에서 기업가정신교육의 효과성을 정량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 IV. 결론

### 4.1 연구결과 요약 및 시사점

본 연구는 GETR 2016년도 데이터를 활용하여 한국을 포함한 주요 20개국을 대상으로 국가별(유형별) 기업가정신 현황

및 국가별(유형별) 창업 실태, 그리고 기업가정신과 창업(창업의지 및 기회형 창업)의 관계를 밝힘으로써 국내 창업 환경 개선 및 바람직한 창업 인식조성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20개국 40,354명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했으며, 연구의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가정신교육의 공급 확대가 매우 시급하다. 한국의 ‘초중고 기업가정신교육 경험’은 분석대상 20개국 중 최하위 수준(19위)에 있으며, ‘대학’ 및 ‘평생교육’ 차원의 기업가정신교육은 중위권(15위)에 불과하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청년층 대상 기업가정신교육은 활성화되고 있으나, 중고령자에 대한 기업가정신교육은 상대적으로 미약한 수준이다. 향후 평생교육 차원의 교육 확대가 요구되며, 재직자 및 은퇴예정자 대상 기업가정신 교육 개발 및 확대가 요구된다.

둘째, 한국인 개인의 창업의지는 중하위권(15위)이지만 기회형 창업수준은 최하위(20위)이다. 한국인 개인의 창업의지는 3.8점으로 중국 4.55점 및 미국 4.01점에 비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창업자 및 창업경험자를 대상으로 한 기회형 창업 수준인데 한국의 경우 3.43점으로 중국(4.35), 일본(4.04), 미국(4.59)에 비해 매우 낮게 나타난다. 요소주도형→효율주도형→혁신주도형으로 전환될수록 기회형 창업의 비중은 높아지지만, 한국의 경우 비자발적 창업 및 소상공 중심의 창업 비중이 높기 때문에 기회형 창업 수준이 매우 낮게 나타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것은 한국의 창업 환경 및 인식, 유형 등은 매우 열악하다는 점을 나타내는 주요한 결과이고, 향후 국내 창업환경의 전환기적 변화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끝으로 요소, 효율, 혁신 등 모든 유형에서 기업가정신교육 참여에 따라 창업의지는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혁신중심유형일수록 효율중심 및 요소중심 유형보다 모든 기업가정신교육유형(초중고, 대학, 평생교육) 참여여부에 따라 신규창업의지는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향후 혁신주도형에 속한 한국의 경우 기업가정신교육의 양적 확대를 기반으로 질적 제고를 한다면, 지금의 중하위권(15위)에 머문 국민의 창업의지를 상승시킬 주요한 원동력이 될 것이다.

본 연구의 학술적 의의는 국내에서 추진한 글로벌 기업가정신 지수를 바탕으로 실증분석을 수행함으로써 지수의 학술적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였다는 데 있다. GETR이 비록 측정체계나 방법에서 일부 개선점이 있으나, 대규모 데이터를 바탕으로 국가 및 기업 간 기업가정신 비교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활용성이 높으며, 결과 역시 해외 평가 결과와 일관성이 있다는 점에서 유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실무적 의의로는 다양한 분석을 바탕으로 국내 창업환경의 문제점과 기업가정신교육 방향성을 제시하였다는 것이다. 기존에 소규모의 제한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논의되어 온 국내 창업환경의 현 주소와 기업가정신 교육과의 관계를 대규모 데이터를 바탕으로 국내 창업환경의 객관적 수준 비교와 이의 개선을 위한 교육적 측면의 개선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은 실무적 가치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실증분석을 통해 기업가정신 교육의 대상 연령을 확대시킬

필요성에 대해 확인하였다는 점은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창업지원 사업의 방향과도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준비가 부족한 젊은 세대의 기업이 정신을 함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지식, 경험, 네트워크가 풍부한 중장년층에 대한 기업가 정신 교육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이 혁신주도형 국가 반열에 올라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회형 창업 비중이 높지 않다는 점은 정부가 과거 추진해온 창업 정책에 대한 한계점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현 정부가 새롭게 시도하고 있는 고급인재 중심의 창업지원정책은 기회형 창업 비중 증가를 견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기업가정신 교육의 영향력이 혁신주도형 국가에서 더욱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이는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하면서 창업지원 및 교육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기업가정신 교육 확대가 창업 의지를 제고하여 실제 창업으로 이어지며, 창업 성과가 다시 교육에 재투자되는 선 순환적 창업생태계를 형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 4.2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연구방향

본 연구는 2016년 GETR 데이터를 활용하여 주요 20개국 대상 횡단적 연구(Cross-Sectional Research)를 실시했으나, 향후 연구는 시간에 따른 변화를 추적하는 종단적 연구(Longitudinal Research)가 필요한 시점이다. 개인 및 집단, 국가의 기업가정신(교육)과 창업환경, 창업수준의 변화의 향상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변인들 간의 상호관계 및 인과관계를 규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종단연구의 필요성은 증대되고 있으나 국내 창업연구 중 창업자를 대상으로 한 추적 연구는 남정민 외(2013)의 연구 등 매우 제한적인 실적이다. 또 다른 한계점은 기회형 창업 수준이 낮은 이유와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정량적 분석(Quantitative Analysis)을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각 국가 유형별(요소, 효율, 혁신)로 기회형 창업 영향요인 및 장애요인을 도출함으로써 국내 창업생태계의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끝으로 본 연구는 기업가정신교육의 양적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 실증적으로 검증했으며, 효과적인 교육방법 등 질적 제고를 위한 방안 에 대해서는 향후 연구를 통해 밝히고자 한다.

## REFERENCE

권선아(2017). 중국, 창업 투자 열기 ‘활활’...중국의 실리콘밸리 ‘중관촌’에 집중 ChinaFocus, <http://chinafocus.co.kr/view.php?no=2751>  
 김선우·박기윤(2015). 카프만 인덱스 (Kauffman Index) 를 통해 본 2015 미국의 창업활동. *과학기술정책*, 25(7), 28-33.  
 김성훈·남정민(2016). 대한민국 창업생태계 현황 및 인식연구: 창업가, 예비창업가, 학생을 중심으로 현황 및 인식 비교분석,

*벤처창업연구*, 11(6), 175-183.  
 남정민(2017). *창업단계별 기업가정신 및 창업생태계 인식에 대한 연구: GETR를 활용한 주요 국가별 비교분석*,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남정민·전병준·박정우(2013). 창업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창업준비단계 핵심요인 연구: 한국노동패널을 활용한 창업생존에 대한 종단분석, *인적자원관리연구*, 20(3), 27-42.  
 우형록·권정연(2013). 기업가적 지향성과 흡수역량이 중소기업의 신제품개발에 미치는 영향, *기술혁신연구*, 21(2), 57-84.  
 이원준·김석관·배용호·김영환·임송·고명주(2014). *글로벌 기업가정신 지수개발*, 중소기업청·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이채원(2017). 기업가적 활동 형성에 미치는 영향요인: 인지론적 접근, *벤처창업연구*, 12(3), 65-74.  
 정구혁·이병현(2017). 기업가정신 국제조사(GETR)의 개선방안 연구: 기업가정신 하위차원 검증과 환경지수의 영향 고찰, *한국창업학회지*, 12(3), 172-195.  
 최진욱·박진아(2016). OECD 국가 패널분석을 통한 규제개혁의 경제성장 및 고용창출 효과 분석, *규제연구*, 25(S), 3-25.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2015). *2015 글로벌 기업가정신 트렌드 리포트*, [http://www.getr.or.kr/reports/2015\\_GETR\\_Kor\(GlobalEntrepreneurshipTrendReport2015\\_Full\\_Kor\).pdf](http://www.getr.or.kr/reports/2015_GETR_Kor(GlobalEntrepreneurshipTrendReport2015_Full_Kor).pdf)  
 한창희·이상열·김민관·정지수(2016). *기업가정신 사업성과 분석 및 향후 발전방안 연구*, 중소기업청·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황인학(2017). *2016년 한국의 기업가정신 지수 추정*, KERI Brief, 한국경제연구원

Bandura, A.(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2), 191.  
 Bosma, N.(2013). The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GEM) and its Impact on Entrepreneurship Research. *Foundations and Trends in Entrepreneurship*, 9(2), 143-248.  
 Choi, J. W., & Park, J. A.(2016). Impacts of Regulatory Reform on Economic Growth and Employment in OECD Countries, *Journal of Regulation Studies*, 25(s), 3-25.  
 Chrisman, J. J., Bauerschmidt, A., & Hofer, C. W.(1998). The Determinants of New Venture Performance: An Extended Model.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23, 5-30.  
 Chung, G. H., & Lee, B. H.(2017). How to Improve Global Entrepreneurship Trend Report(GETR): Verifying Sub-dimensions of Entrepreneurship and Examining Effects of Entrepreneurship Environment Index(EEI), *Journal of the Korean Entrepreneurship Society*, 12(3), 172-195.  
 Diamantopoulos, A., & Winklhofer, H. M.(2001). Index Construction with Formative Indicators: An Alternative to Scale Development.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38(2), 269-277.  
 Han, C. H., Lee, S. Y., Kim, M. K., & Jung, J. S.(2016). *Performance Analysis of Entrepreneurship Business and Development Plan*,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Korea Entrepreneurship Foundation  
 Hughes, M., & Morgan, R. E.(2007). Deconstruc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Entrepreneurial Orientation and Business Performance at the Embryonic Stage of Firm Growth. *Industrial Marketing Management*, 36(5),

- 651-661.
- Hwang, I. H.(2017). *Estimated Entrepreneurship Index of Korea in 2016*, KERI Brief, Korea Economic Research Institute.
- Kegel, P.(2016). A Comparison of Startup Entrepreneurial Activity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Journal of Management Policy and Practice*, 17(1), 18-26.
- Kim, S. H., & Nam, J. M.(2016). Republic of Korea Entrepreneurship Ecosystem Status and Recognition Research : Focusing on Entrepreneurs, Entrepreneurs Preliminary, Student Centered Comparative Analysis on the Status and Recognition,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1(6), 175-183.
- Kim, S. W., & Park, K. Y.(2015). Entrepreneurship Activity of U.S in 2015 through the Kauffman Index,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25(7), 28-33.
- Korea Entrepreneurship Foundation(2015). *2015 Global Entrepreneurship Trend Report*, [http://www.getr.or.kr/reports/2015\\_GETR\\_Kor\(GlobalEntrepreneurshipTrendReport2015\\_Full\\_Kor\).pdf](http://www.getr.or.kr/reports/2015_GETR_Kor(GlobalEntrepreneurshipTrendReport2015_Full_Kor).pdf)
- Kwon, S. A.(2017). *China Open to Start-up Investment*, Focus on China's Silicon Valley 'Zhongguancun', ChinaFocus, <http://chinafocus.co.kr/view.php?no=2751>
- Lee, C. W.(2017). Examining the Formation of Entrepreneurial Activities through Cognitive Approach,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2(3), 65-74.
- Lee, Y. J., Kim, S. K., Baem Y. H., Kim, Y. H., Lim. S., & Ko, M. J.(2014). *Global Entrepreneurship Index Development*,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Korea Entrepreneurship Foundation
- Lumpkin, G. T., Cogliser, C. C., & Schneider, D. R.(2009). Understanding and Measuring Autonomy: An Entrepreneurial Orientation Perspective.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33(1), 47-69.
- McClelland, D. C.(1961). *The Achievement Society*. Princeton, NJ: Von Nostrand.
- Mike, H.(2017).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2016-2017 Global Report*, Global Entrepreneurship Research Association, London.
- Murphy, R. O., Ackermann, K. A., & Handgraaf, M.(2011). Measuring Social Value Orientation. *Judgment and Decision Making*, 6(8), 771-781.
- Nam, J. M.(2017). *A Study on the Recognition of Entrepreneurship and Entrepreneurial Ecosystem in the Entrepreneurial Stage: A Comparative Analysis of major Countries using GETR*, Korea Entrepreneurship Foundation.
- Nam, J. M., Chun, B. J., & Park, J. W.(2013). Success Factors of Start-ups : An Empirical Study, *Journal of Human Resource Management Research*, 20(3), 27-42.
- Porter, M. E., & K. Schwab(2008).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07-2008*, New York, NY: Oxford University Press.
- Rhee, J., Park, T., & Lee, D. H.(2010). Drivers of Innovativeness and Performance for Innovative SMEs in South Korea: Mediation of Learning Orientation. *Technovation*, 30(1), 65-75.
- VandeWalle, D.(1997).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Work Domain Goal Orientation Instrument.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57(6), 995-1015.
- Walter, A., Auer, M., & Ritter, T.(2006). The Impact of Network Capabilities and Entrepreneurial Orientation on University Spin-off Performance.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21(4), 541-567.
- Woo, H. R., & Kwon, J. E.(2013). The Influence of Entrepreneurial Orientation and Absorptive Capacity on SME's NPD, *Journal of Technology Innovation*, 21(2), 57-84.

# A Study on the Current State and Effect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in Major Countries: Comparison of the 2016 Global Entrepreneurship Index\*

Nam, Jungmin\*\*

Lee, Hwansoo\*\*\*

##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current state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and start-up foundations by country in order to find ways to improve the domestic entrepreneurial environment and to promote the recognition of desirable entrepreneurship practices. It also investig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entrepreneurship, entrepreneurial will, and the level of opportunity-based entrepreneurs, by using data from the 2016 Global Entrepreneurship Trend Report (GETR).

First, the results show the urgent need for the expansion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in Korea. In the GETR category of 'experience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in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 Korea was ranked very low (19th place), among the 20 countries. In the 'college' and 'lifelong entrepreneurship education' categories, it procured a mid-level ranking (15th). While entrepreneurship education for all ages is being promoted globally, entrepreneurship education for middle-aged individuals in Korea is relatively weak. This implies that the expansion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to lifelong education and education for employees and retirees is required.

Second, the individual's entrepreneurial intention in Korea was 3.8 points, implying a mid-level ranking (15th), and it ranked the lowest in terms of opportunity-based entrepreneurship (20th). In comparison to China (4.55) and the United States (4.01), the entrepreneurial intention of Koreans was found to be low. The level of opportunity-driven entrepreneurship was also found to be very low, compared to China (4.35), Japan (4.04) and the United States (4.59). In general, the proportion of the level in opportunity-driven entrepreneurship, increases from the factor-driven and efficiency-driven, to the innovation-driven type. In Korea, the percentage of entrepreneurial ventures centered around involuntary entrepreneurship and small businesses is high. It is also interpreted that opportunity-based entrepreneurs are low in number because of this high proportion of involuntary start-up and small businesses.

Last, the entrepreneurial intention in all types (factor-driven, efficiency-driven, and innovation-driven) was exceptionally high. It has been confirmed that exposure to all entrepreneurship education (elementary, junior high, university, and lifelong education) in innovation-driven countries, greatly increases entrepreneurial intention. In the case of Korea, which is an innovation-driven country, qualitative improvement based on quantitative expansion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is expected to be a major driving force for individuals' entrepreneurial intention to obtain a mid-level ranking (15th).

*Key words: Global Entrepreneurship Trend Report(GETR),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GEM), Opportunity-based Start-up, Factor-driven Economies, Efficiency-driven Economies, Innovation-driven Economies*

---

\* This paper is a research project funded by the government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in 2017, supported by the Korea Entrepreneurship Foundation.

\*\* First Author, Professor, Venture Business Administration, Dankook University, namjm@dankook.ac.kr

\*\*\* Corresponding Author, Professor, Department of Convergence Security, Dankook University, hanslee992@gmail.com